

보도시점 2024. 1. 11.(목) 06:00 < 1. 11 (목) 석가 > 배포 2024. 1. 10.(수)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돋보기]

'24년 공급망 안정화 사업 본격 추진

-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R&D) 지원 4배, 핵심광물 비축지원 6배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12월 13일(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을 '23년 176억 원에서 '24년 73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품목 전용 연구개발(R&D) 분야(트랙)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전기전자 핵심 부품 등 29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공급망 완결형 협력모델’(24년, 3개 과제 60억)을 통해 수요-공급기업이 가치사슬 상 연계된 둘 이상의 공급망안정품목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개발(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양산성능평가(’23년 100개사 → ’24년 150개사)에서도 공급망안정품목을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❶대체 수입처 발굴 및 현장 실사, ❷표본(샘플) 수입 및 성능검사, ❸대체품 도입까지, 대체 수입처 발굴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수입처 다변화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23년 게르마늄, 수산화리튬, 폴리브덴 등 4개 품목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4년에는 기업 수요를 받아 10개 품목('23년 4.6억 →'24년 7.8억)에 대해 대체 수입처 발굴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공급망안정품목 포함) 수입보험 한도도 올해 5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광물 비축 예산을 '23년 372억 원에서 '24년 2,331억 원으로 확대하여 광물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리튬('23년 5.8일→'24년 30일분), 전기자동차용 영구자석 희토류('23년 6개월→'24년 1년 6개월분) 등 첨단산업 필수 핵심광물의 비축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이며, 확대되는 비축 물량에 대비하여 신규 전용 비축기지 건설도 착수한다.

산업부는 주요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심층분석 및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산업공급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044-203-4916)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윤 (044-203-4920)
	소재부품장비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박한기 (044-203-4927)
	자원산업정책국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259)
	광물자원팀	담당자	사무관	정주환 (044-203-5256)